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아세르 인트레이터*

저는 보통 해 뜨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온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유대 산지에 있는 저희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모든 것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한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아빠로 부른 순간은, 믿음과 종교 역사에 있어, 이전에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을 능가하는 돌파가 일어나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을 줄 수도, 그분께 당황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상황마다 우리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지 혹은 그분을 멸시하게 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 우리가 이곳에 있는 “구원 받고, 축복 받고, 휴거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원천으로, 방향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며, 목적지는 지상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다른 기도들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육체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도 한 사람들은, “모든 일용할 만나도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어떤 해결책이든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멈추고,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과 원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 회개는 우리의 죄스러운 행동을 다룹니다. 이 기도는 내면에서 죄로 쏠리는 우리의 경향을 다루는데, 그냥 죄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유혹도 다룹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 앞의 모든 단계를 거친 후, 우리는 우리 주위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세르가 마태복음 6:9-13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는 이 동영상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g-aHrhcaUYo?list=PLrQljPM4N0r0YMjvi9chiolg1Y9OPBvn7>

## 친구들과의 교제 (1부)

### *라헬 네타넬*

제 친구 페니나는 관광 가이드인데요, 지금 그녀는 그녀의 인솔팀을 데리고 저희 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것으로 관광 일정을 마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페니나는 텔-아비브에서 18명의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성경교사였습니다. 제가 예슈아에 대해, 그분이 얼마나 자주 예언되었는지 말하자,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쳐왔어도 어느 곳에 메시아에 대해, 혹은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와 다른 구절들을 나누자,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전기회사의 임원들 한 그룹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저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기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어떤 무신론자가 저에게 오직 힘없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친구들과 가족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일단의 학생들과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들 절반은 키파(야르물케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례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 옴키푸르(속죄일)까지의 열흘인, 곧 다가올 경외의 날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8:4 “...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사야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재정적으로 씨를 뿌리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분의 헌금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reviveisrael.org/give/>

## 아하뵈 예슈아 회중

*에디 산토로*

지금 제 건강 상태는 회중의 매일 기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 인생의 여러 해를 투자해온 젊은 리더들이 스스로 새로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결실과 진보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에게 있는 시험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의 “물결”이 저희 회중을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인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안식일 모임도 놀라웠습니다. 성장은 그저 수적으로만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은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증가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중에 강력한 속명이 있으며, 예루살렘 중에서 기사와 이적의 사건들로 추수해들이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마지막 때 회중으로서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유대력의 새해(나팔절)를 맞아 축하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새 달 명절은 큰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부터 옴 키푸르까지 열흘은 경외의 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들은 다른 일들을 멈추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옴 키푸르에 저희는 다른 네 회중과 함께 24시간 금식기도회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함께 새해에 주님의 몸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새로운 만지심을 간구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데에, 그리고 중동과 전 세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위해 중보하는 데에 여러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